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목 순 약*·조 명 옥**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질환은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으나 질병이 완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환자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 대표적인 만성퇴행성질환인 뇌졸중은 생활양식의 서구화와 수명의 연장으로 50대 이상에서 질병별 유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73.2명으로 여전히 3대 사인에 속한다(Bureau of Korean Statistics, 2001). 뇌졸중 발병 후 생존자의 90% 이상이 뇌 병변 부위에 따라 연하장애, 언어장애, 감각상실, 인식장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경험하며, 특히 70~80% 이상이 편마비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하여 70% 환자가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부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야 한다(Bruce & Dobkin, 2003). 더욱이 뇌졸중은 30~60% 이상이 1년 이내에 재발되어 점차로 건강문제가 악화되는 특징이 있으며(Barker, 1994), 결과적으로 환자의 29%는 3년간, 44%는 5년간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의존한 채로 투병생활을 해야 한다(Hankey et al.,

2000).

이렇듯 장기간에 걸친 의존적인 생활과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하는 뇌졸중 환자들은 치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에 치료활동을 중지하고, 이때부터 그들 나름대로 보조 약을 사용하거나 민간요법 등을 한두 번 시도하게 된다(Nam, 1997). 또한 뇌졸중 완치율은 10% 미만이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관리를 위해 정통적인 건강관리 즉, 현대 의학이 흡족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Lee, 1999).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로 시행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보완대체요법은 인체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패턴과 동일한 유기물질로 된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하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주고 복원시켜주는 요법으로 인체의 면역기능과 회복능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체적인 병변부위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치료를 행하여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는 특성이 있다(Scrutton, 1992).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은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과학적으로 효과

* 광혜병원 보험심사실 주임간호사

**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4년 4월 22일 심사외뢰일 2004년 4월 27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8일

가 없다고 증명된 치료법으로 병원에서 널리 시술되지 않고 정규 의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치료방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Lee, 1997).

우리나라에서도 보완대체요법을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 민간요법, 민속요법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해 왔으며, 대부분 이용자들이 그러하듯이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체요법을 막연한 기대와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용하고 있다(Hong, 1999). 그렇기 때문에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과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간호중재로 활용 가능인지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도되어 온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관절염(Lee, Kang, & Lee, 1997), 종양(Park & Jeung, 1995; Choi, 1998; Kim, 2000; Ko, 2000; Seoul, 2001), 간질환(Seo, 1998; Son, 1999), 후천성 면역 결핍증(Singh, Squier & Sivek, 1996), 만성피부질환자(Jensen, 1990), 당뇨병(Kim, 1994; Kim, Nam, & Cho, 1994; Eum & Lee, 1997), 고혈압(Jeung, Park, & You 1997) 등의 만성 질환자를 대상 한 실태조사나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선행연구들에서는 만성 질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고, 보완대체요법은 환자들이 질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게 하는 역동적 힘으로 작용하고(Kim, 2000), 자기 몸 다스림 과정을 통한 적응행위임을 밝혀내었다(Son, 1999). 즉 보완대체요법이 만성 질환자들에게 단순히 질병의 치료적 차원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영적인 면에서 간호중재의 도구로 활용되어지면서 질병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고 한다(Kim, 2000).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있어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Lee(1999)의 여러 종류의 만성 질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총 205명중 14명의 극히 소수의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와 이용 후의 만족도 정도와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과 대체의료 이용에 관한 연구(Hong, 1999) 외에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급성기를 지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를 경험하는 뇌졸중 환

자가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뇌졸중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이용시기, 이용 동기, 이용 후의 반응과 만족 정도, 부작용의 경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대체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제공과 환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간호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로 시행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뇌졸중 환자의 간호중재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유무를 파악한다.
- 2)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보완대체 요법이란 일반적인 서양의 정통의료와 비교 되는 것으로서 정통적인 의료와는 다른 이론과 경험의 근거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치료와 방법을 말한다(Gordon, 1996).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대체의학국(OAM)의 대체의료 7가지 분류를 적용하여 Lee(1999)가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요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물질과 방법을 포함,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 중에서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통 한의학적 방법은 제외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건강증진행위로 시행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영남 지역 두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임의 표출한 194명이다.

- 1) R-Scale Level이 6이상인 자
- 2)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국문 해독이 가능한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

3. 조사도구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도구는 미국 국립 보건원 대체의학국의 대체의료 7가지 분류를 적용하여 Lee(1999)가 작성한 질문지를 뇌졸중 환자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지 내용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 문항, 그리고 12문항의 보완대체요법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타당도 검정을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뇌졸중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문항 및 내용구성을 수정·보완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는 .97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8월 19일부터 2002년 11월 12일까지이었다. B 광역시와 U 광역시 소재 11개 종합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임의 표출한 후 연구자가 직접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질문지를 환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편마비로 질문지 작성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읽어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질문지는 202부 배부하였고, 응답의 충실성이 부족한 8부를 제외한 총 194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환자가 이용한 방법이나 물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7개 분류표에 따라 식이 및 영양, 정신·신체기법, 전통 및 민간요법, 약물·생리적 치료, 수기요법, 약초요법, 생전자기장치료,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제 특성과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의 내용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χ^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대상자의 제 특성과 이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유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서 여자 환자가 53.6%이었고, 연령은 50~69세가 46.9%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초등 이하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1.9%이었고, 직업은 무직이 37.6%로 가장 많았다. 87.6%가 도시에 거주하였고, 월평균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인 41.2%로 가장 많았다.

뇌경색이 69.1%로 뇌출혈 30.9%보다 많았고, 87.1%가 마비를 동반하고 있었고, 77.8%가 1차이었고 2차 이상의 발병은 22.2%이었다. 뇌졸중과 관련된 선형 질환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중 한가지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복합질환은 22.2%로 나타났다.

재활유무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73.7%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26.3%는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신체기능상태는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24.2%,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94명중 139명(71.6%)이 한 가지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유무는 선형질환($\chi^2=15.03$, $p=0.001$), 재활치료유무($\chi^2=6.341$, $p=0.012$), 일상생활 기능 정도($\chi^2=19.63$, $p=0.000$)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본 연구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 요법은 이용 경험이 있는 뇌졸중 환자 139명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과 물질들 중에서 식이 및 영양요법이 31.8%로 가장 많았고, 수기요법은 22.5%, 정신·신체기법과 약초요법은 각각 13.9%, 생전자기장은 6.8%, 전통 및 민간요법은 5.4%, 기타는 3.9%, 약물·생리적 치료는 1.8%로의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and use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y N=194

Characteristics	Category	Use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y			X ²	p
		total n(%)	yes(n=139) n(%)	no(n=55) n(%)		
sex	male	90(46.4)	67(48.2)	23(41.8)	0.414	0.520
	female	104(53.6)	72(51.8)	32(58.2)		
age	49≥	38(19.6)	29(20.9)	9(16.4)	2.414	0.299
	50~69	91(46.9)	68(48.9)	23(41.8)		
	70≤	65(33.5)	42(30.2)	23(41.8)		
education	6 yr≥	88(45.4)	61(43.9)	27(49.1)	2.030	0.362
	7-12yr	73(37.6)	51(36.7)	22(40.0)		
	13yr≤	33(17.0)	27(19.4)	6(10.9)		
occupation	laborer	45(23.2)	29(20.9)	16(29.1)	5.020	0.159
	manager	32(16.5)	22(15.8)	10(18.2)		
	house wives	44(22.7)	29(20.9)	15(27.3)		
	no	73(37.6)	59(42.4)	14(25.5)		
spouse	yes	120(61.9)	87(62.6)	33(60.0)	0.291	0.864
	no	74(38.1)	52(37.4)	22(40.0)		
residential	urban	170(87.6)	125(89.9)	45(81.8)	1.701	0.192
	rural	24(12.4)	14(10.1)	10(18.2)		
income/ month	100million>	72(37.1)	51(36.7)	21(38.2)	0.126	0.939
	100-200million	80(41.2)	57(41.0)	23(41.8)		
	200million<	42(21.6)	31(22.3)	11(20.0)		
diagnosis	ischemic	134(69.1)	95(68.3)	39(70.9)	0.031	0.860
	hemorrhagic	60(30.9)	44(31.7)	16(29.1)		
paralysis	yes	169(87.1)	118(84.9)	51(92.7)	1.514	0.219
	no	25(12.9)	21(15.1)	4(7.3)		
frequency of onset	1	151(77.8)	106(76.3)	45(81.8)	0.420	0.517
	2	43(22.2)	33(23.7)	10(18.2)		
concurrent disease	1	97(50.0)	75(54.0)	22(40.0)	15.039	0.001**
	2<	43(22.2)	36(25.9)	7(12.7)		
	no	54(27.8)	28(20.1)	26(47.3)		
Tx of rehabilitation	yes	143(73.7)	95(68.3)	48(87.3)	6.341	0.012*
	no	51(26.3)	44(31.7)	7(12.7)		
level of ADL	independent	40(20.6)	34(24.5)	6(10.9)	19.634	0.000**
	assistant	107(55.2)	83(59.7)	24(43.6)		
	dependent	47(24.2)	22(15.8)	25(45.5)		

* p <0.05 ** p <0.01

순으로 이용하였다<Table 2>.

<Table 2> The type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N=139

Category	n(%)*	rank
diet and nutrients	89(31.8)	1
psycho-motor therapy	39(13.9)	3
folk and traditional therapy	15(5.4)	6
pharmacologic, physiotherapy	5(1.8)	8
mechanical therapy	63(22.5)	2
herb therapy	39(13.9)	3
bio-field therapy	19(6.8)	5
others	11(3.9)	7

* multiple response

3.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에서<Table 3>, 이용기간은 3개월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미만이 23.0%, 1년 이상은 22.3%이었다. 이용시기는 치료도중이 51.1%로 가장 많았고, 발병 즉시가 25.2%, 발병 전 14.4%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이유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가 43.2%로 가장 많았고, '이용 경험담을 듣고'가 36.7%, '타인의 권유'가 15.1%이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는 이웃이 27.3%, 가족 25.2%, 친지 19.4%로 주로 주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동

안에 가족이 가장 도움을 많이 주었다(56.1%).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 반응은 '효과가 없다'가 30.9%로,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가 28.1%, '원기가 회복 된다'가 23.7%로 나타났고,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의 만족정

도는 약간 만족이 66.9%, 매우 만족이 8.6%로 75.5%가 이용 후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용 후 부작용은 95.0%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이 정통의 료보다 좋은 점으로 '몸을 보호해 준다.' 31.7%,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25.2%, '몸에 해가 안 된다' 19.4%로 지적하였다.

<Table 3> Use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y N=139

Characteristics	Category	n(%)
duration	3 month>	49(35.3)
	3~6 month	32(23.0)
	6~12 month	27(19.4)
	12 month<	31(22.3)
period of use	pre-onset	20(14.4)
	at onset	35(25.2)
	during Tx	71(51.1)
	at aggravation	4(2.9)
	others	9(6.5)
cause of use	belief on effect	60(43.2)
	informed from others	51(36.7)
	recommend from others	21(15.1)
	based on scientific results	2(1.4)
	less side effects	1(0.7)
	others	4(2.9)
source of information	mass media	26(18.7)
	families	35(25.2)
	relatives	27(19.4)
	neighbors	38(27.3)
	others	13(9.4)
supporter	by-self	16(11.5)
	family	78(56.1)
	neighbor	14(10.1)
	relative	18(12.9)
	others	13(9.4)
subjective effects	promote blood circulation	39(28.1)
	improve neuromotor function	5(3.6)
	improve walking	6(4.3)
	recover vitality	33(23.7)
	no effect	43(30.9)
others	13(9.4)	
satisfaction	very satisfy	12(8.6)
	somewhat satisfy	93(66.9)
	somewhat unsatisfy	25(18.7)
	very unsatisfy	8(5.8)
side effects	yes	7(5.0)
	no	132(95.0)
merits	no harm	27(19.4)
	preserve vitality	44(31.7)
	less side effect	8(5.8)
	more effective	16(11.5)
	time efficiency	3(2.2)
	economic efficiency	3(2.2)
	emotional comfort	35(25.2)
	other	3(2.2)

V. 논 의

최근 들어 보완대체요법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증진의 차원에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만성 질환과 난치병이 증가되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치료의 대안으로, 혹은 현대의학을 보완하는 치료법으로 관심과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주로 만성 질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71.6%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종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Lee(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51.2%나, 응급실을 내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Hong(1999)의 연구의 60.1%, 암 환자(Seul, 2001: Lee, 1999; Jung, 1997; Choi, 1998; Fernandez, 1998)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율 46.7~63.0%보다 높았다. 그러나 Lee, Kang와 Lee(1997)의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의 보완대체 이용율 80.6%나 Kronenfeld와 Wasner(1982)의 연구의 94%보다는 낮았고, Nam, Kim과 Cho(1994)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4%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보완대체 이용률이 다양한 것은 각 연구 대상자의 질병의 종류나 조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70%가 넘는 환자가 보완대체 요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뇌졸중 환자간호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 요법 이용율은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 유무의 차이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직업, 배우자, 주거지역, 주거형태, 월평균수입, 주간병인, 가족구성원수에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과 종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로 50-69세의 연령층에서 보완대

체요법을 많이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대체의료 이용에 대한 Hong(1999)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리사무직보다는 노동·생산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렇게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유무에 대한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는 것은 보완대체요법 시행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속적으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뇌졸중 환자의 질병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에서는 선행질환, 재활치료, 일상생활기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단일질환이나 복합질환과 같은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에서는 진단명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Eum과 Lee(1997)의 연구에서는 진단명, 질병의 심각성, 증상경험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질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고, 만성질환자(Lee, 1999)나 당뇨병 환자(Eum & Lee, 1997)와는 달리 뇌졸중 환자의 경우 90% 이상이 뇌 병변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장애 및 편마비라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은 식이 및 영양요법이 31.8%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고, 수기요법은 22.5%, 정신·신체기법과 약초요법은 각각 13.9%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식이 및 영양요법 중에서도 녹즙을 많이 선호하였고, 그 외에도 버섯류, 키토산, 우담 및 녹용 등을 선호하였다. 버섯류를 선호하는 것은 버섯의 다당체가 면역력을 증가시켜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생각하여 선호하는 것이라는 보고가 있으며(Seol, 2001), 국내의 선행연구들(Ko, 2000; Seo, 1998; Son, 1999; Choi, 1998)에서도 대상자들이 식이 및 영양요법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적절한 식습관과 생활태도의 문제로 인해 만성질환이 발병된다는 인식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건강행위로 볼 수

있었다.

그밖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3.9%의 정신·신체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주로 체조나 종교 등을 선호하였다. Seol(2001)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암 환자의 정신·신체기법 이용률 0.8%보다 높게 나와 질병에 따라 이용양상이 다를 수 있었다. 이렇게 뇌졸중 환자들이 다른 만성 질환자들에 비해 체조를 선호하는 것은 뇌졸중으로 인해 생기는 일상생활곤란을 최소화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고 신체적 기능증진 등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뇌졸중 환자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에서 3개월 미만이 51.5%의 결과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기간이 짧은 이유는 급성기를 지나 재활 단계에 들어선 뇌졸중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오면서 회복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으로 경험하는 영구적 장애에 대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비용의 부담 및 가족이 바쁘거나 소홀해짐으로 인해 타의에 의해 중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시기는 51.1%가 치료도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1998)의 연구에서도 이용자의 44%는 병을 알게 된 뒤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고 40%에서는 병이 진행되면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뇌졸중이 발병되고 응급치료 등이 끝나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질병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정보 수집을 활발히 하고 질병치료행위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완대체요법을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을 단지 비의료적 행위로 간주하고 사용을 금지하기 보다는 간호중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43.2%가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6.7%는 ‘이용 경험담을 듣고’라고 응답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ol(2001)의 연구에서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가 50.6%로 뇌졸중 환자보다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29.4%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밖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Lee(2000)의 연구에서는 62.1%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이용한다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Kim(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한 가지 이상의 민간요법을 행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민간요법을 찾는 이유는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약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함이거나, 자연으로부터 치료방법을 추구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Elder등(1997)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이유로 현대 의료의 한계와 만성질환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에서, 그리고 특수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질환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Scrutton(1992)은 만성질환자들은 질병 자체를 없애는 치료법에 치중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치료에만 주력해 온 서구식 개념의 기증의학에 한계를 인식하고, 따라서 질병과 고통을 자연의 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해 주고 복원시켜주는 자연요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보완대체요법의 효과에 대한 막연한 주관적 기대와 경험적 증거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보완대체요법을 정통의료의 대안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 이용 사유와 결정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맥락에서, 그리고 이용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 이면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 의미들을 보완대체요법 실천 행동으로 이끄는 양상이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을 알게 된 경로는 이웃이 27.3%, 가족이 25.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Jung(1997)의 연구에서 '가족의 권유'가 40.5%, '본인 스스로'가 37%, '친구의 권유'가 12.6%로 나타난 것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oi(1998)의 연구결과에서 이웃과 병원의 동료환자가 43.5%, 미디어가 22.1%, 가족, 친족이 20.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동안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가족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 정보제공자이자 실천 과정에서의 동료로 적극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물론 이들 가족과 이웃을 교육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 반응은 '효과가 없다'가 30.9%,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가 28.1%, '원기가 회복된다'가 23.7%이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보완대체요법에 따른 이용 후의 반응은 다르겠지만, Seul(2001)의 연구의 암 환자들은 52.9%가 '편안하고, 전신상태가 호전되었으며 효과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응답한 점에서 볼 때 다분히 심리적인 면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 만족 정도를 보면, 7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Lee(1999) 연구의 만성질환자 중 74.3%의 환자가 '보완대체요법에 만족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Jeung(1997)의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26.7%만이 '보완대체요법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주관적인 효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95.0%가 '없다'라고 응답하여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ul(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보완대체요법이 정통의료보다 좋은 점은 '몸을 보호해 준다'가 31.7%,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가 25.2%, '몸에 해가 안 된다'가 19.4%로 나타났고, Lee(1999)의 연구에서 만성 질환자들은 32.3%가 '몸을 보호해 준다.', 25.3%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응답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보완대체요법은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통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이 질병경험 과정에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치료도중에 현대의학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 뿐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환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포괄적인 간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B시와 U시의 11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졸중 환자 194명을 대상으로 2002년 8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술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χ^2 검정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대상자의 71.6%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선행질환 유무($\chi^2=15.03$, $p=0.001$), 재활치료 유무($\chi^2=6.341$, $p=0.012$), 일상생활 기능 정도($\chi^2=19.63$, $p=0.000$)에 따라 이용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 종류는 식이 및 영양요법이 31.8%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수기요법은 22.5%, 정신·신체기법과 약초요법은 각각 13.9%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3. 보완대체요법 이용기간은 3개월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았고, 51.1%가 의학 치료 중에 이용하였고, 43.2%가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이웃(27.3%), 가족(25.2%), 친지(19.4%)로부터 얻었고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동안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가족이었다(56.1%). 보완대체요법 이용 후 30.9%의 환자가 '효과가 없다', 28.1%는 '혈액순환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다. 95%의 환자가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75.5%가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만족을 표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의 장점으로는 '몸을 보호해 준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31.7%).

이상의 결과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정통적인 현대 의학 치료를 받으면서도 보완대체요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질병경험과정 중에 행하는 보완대체요법 이용을 파악하여 뇌졸중 환자를 위해 활용가능한 간호중재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뇌졸중 환자가 이용하는 보완대체요법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2. 뇌졸중 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에 대하여 그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Bruce, H., & Dobkin, M. D. (2003). *The clinical*

science of neurologic rehabilita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ureau of Korean Statistics (2001). *Statistical yearbook of social statistics*. Seoul.

Choi, Y. J. (1998).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 by cancer pati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Elder, N. C., Gillcris, A., & Minz, R. (1997). Use of alternative health care by family practice patients.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2), 181-184.

Eum, D. C., & Lee, Y. S. (1997). A surve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by patients with diabetes. *J Korean Nurs*, 1(1), 72-81.

Fernandez, C. V. (1998).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y in British Columbia: Prevalence and Reasons for Use and Non-use. *J Clin Oncology*, 16(4), 1279-1286.

Gordon, J. S. (1996). Alternative Medicine and the Family Physician. *American Family Physician*, 54(7), 2205-2212.

Hankey, C., Jamorzik, K. Broadhurst, R., Forbes, S., Burvill P., Anderson, C., & Stewart-Wynne, E. (2000). Five-year survival after first-ever stroke and related prognostic factor in the Perth community stroke study. *Stroke*, 31, 2080-2086.

Hong, S. T. (1999). *A stud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remedies and time consuming between onset of stroke and hospital arrival*. Doctoral dissertation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Jensen, P. (1990). Alternative therapy for atopic dermatitis and psoriasis: Patient-reported motivation, information source and effect. *Acta Derm Venereol*, 70, 425-428.

Jeung, Y. S., Moon, B. K., & Nam, H. Y. (1997).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J Korean Family Med*, 18(11), 1371.

Jeung, Y. S., Park, I. H., Uoo, S. M., & Kim, G. S. (1997). The use of traditional and folk

- medicine of patient with hypertension. *J Korean Family Med*, 18(11), 1354.
- Kim, J. K. (2000). *The lived experience of using alternative therapy by middle aged women with cancer*. Master's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Seoul.
- Ko, D. S. (2000). *The use of alternative therapy by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of Jungang University, Seoul.
- Kronenfeld, J. J., & Wasner, C. (1982). The use of unorthodox therapies and marginal practitioners. *Soc Sci Med*, 16, 1119-1125.
- Lee, E. O., Kang, H. S., & Lee, I. S. (1997). A study on utilization of folk remedies by patients with arthritis. *The Seoul J of Nurs*, 11(1), 1-12.
- Lee, J. G. (1997). Alternative Medicine. *J Korean Med*, 40(9), 1203-1207.
- Lee, M. S. (2000). A study of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in diabetes mellitus. *J Korean Acad Nurs*, 31(1), 7-19.
- Lee, Y. J. (1999). A survey on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y in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Master's thesis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Nam, M. S., Kim, K. L., & Cho, J. H. (1994). The survey of folk therapy use by the adult diabetes patients. *J Diabetes*, 18(3), 242-248.
- Nam, S. Y. (1997). The experience of disease by stroke patients. *J Korean Acad Nurs*, 28(2), 479-488.
- Park, J. M., & Jung, B. L. (1995). Folk remedies used by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 Korean Acad Nurs*, 25(3), 419-430.
- Scrutton, S. (1992). *Allopathic medicine: The medicalization of old age*. In Scrutton, S. Aging, Healthy and in Control: An alternative approach to maintaining the health of older people. London : Campman & Hall.
- Seo, M. J. (1998). A survey on alternative therapy used by chronic liver disease. *J Korean Acad Adult Nurs*, 10(1), 1134-147.
- Seol, K. L. (2001). *A study on utilization,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alternative therapy*. Master's thesis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 Singh, N., Squier, C., & Sivek, C. (1996). Determinants of nontraditional therapy use in patients with HIV infection: A prospective study. *Arch Intern Med*, 156(22), 197-201.
- Son, H. M. (1999). *The experience of seeking for alternative remedies by chronic liver disease*. Doctoral dissertation of Seoul University, Seoul.

- Abstracts -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Remedies of Stroke Patients

*Mok, Soon Ak*Cho, Myoung Ok***

Purpose: This descriptiv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out the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remedies for stroke patients.

Method: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194 patients, selected from inpatients department of 11 major medical center at Busan and Ulsan.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9th to November 12th, 2002 through interview schedule designed by the investigator.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by using SPSS Win 10.0. **Results:** 71.6% of objects has used alternative complementary remedies. The use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remedies according to disease-related featur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urrent

* RN, MSN, Insurance review room of Kwanghye General Hospital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Busan

diseases($\chi^2=15.03$, $p=0.001$), rehabilitation treatment($\chi^2=6.341$, $p=0.012$) and the level of ADL($\chi^2=19.63$, $p=0.000$). The most frequently used therapies were diet and nutrition(31.8%). The patients with less than 3month onset and in the mid-period of treatment frequently used remedies. The reason for using remedies were the belief in it's effects on treatment, but most patients responded was not effective(30.9%) or not much improvement after using remedies. Most of the patients were recommended to use remedies by their neighbors(27.3%) and family

members(25.2%). The family members were most supportive in therapy(56.1%). The 28.1% of patients responded that the remedies were effective in promoting blood circulation and 95% of the patients had not experienced side effects.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be the basic material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for cerebral apoplexy patients.

Key words : Stroke,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y